

*** 협회소식 ***

한국도서관협회 비전21 TF, 제1차 회의

- 일시 : 2006년 10월 16일(월) 14:00~15:30
- 장소 : 협회 회의실
- 참석 : 윤희윤(위원장), 김기세, 김지봉, 이용훈, 장덕현
(이상 위원), 유태형(간사)
- 안건 : 1) 비전21 TF팀 운영계획 논의
 - 추진 일정
 - 추진 내용
 - 역할분담 등

2) 기타

- 회의 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이경구 사무총장 : 위원 5명 중 5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림.
 - 윤희윤 위원장 : 개회를 선언함.
 - 한상완 회장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립과 「도서관법」의 개정 등 도서관과 관련된 많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성된 '비전21 TF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협회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람.

2. 안건심의

· 안건 1 : 비전21 TF팀 운영 계획

* 위원제위

- 비전21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 중·장기 계획의 연한 : 5년 정도
- 발전 방안을 위해 검토할 내용
 - 각 도서관계와 관련한 사항
 - 주요 사업 활동에 관한 사항
 - 조직 혁신에 관한 사항
 - 회원제도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일정
 - 발전 방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위원장이 10월 25일까지 정리하여 각 위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의견 수렴 후 각 위원별 업무분장을 실시하여 11월 말까지 자료를 수집기로 함.
 - 집중회의는 12월초로 예정
 - 보고서 완료시기 : 2006년 12월 말(추후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발전방안에 따라 규정 등의 개정은 사무국에서 담당하기로 함.
 - 협회 관련 데이터는 간사가 수집하여 지원기로 함.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리재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보관문화훈장 서훈



한국도서관협회장을 지낸 리재철선생(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 문화의 날을 맞아 한국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한 공적으로 '2006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10월 20일(금)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린 문화의 날 행사 시상식에는 우리협회 한상완 회장과 신재은 재정보급과장 등이 참석하여 리재철 선생께 도서관계 모두의 마음을 담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선생의 약력과 공적은 다음과 같다.

■ 약력

- 1929년생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 졸업
- 연세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미시간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수학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박사과정 수료
- 前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사서장
- 前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도서관학과 교수
- 前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장
- 前한국도서관학회 회장
- 前한국도서관협회장
- 前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명예교수

■ 주요 공적

- 1948년에 국립도서관학교, 1957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문학사)를 졸업하고, 1959년 연세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에서 석사과정(문학석사)을 수료하고, 1959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도서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4년 2월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문헌정보학에 헌신하며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후학들을 배출함.
- 1957년 한국외국어대학교도서관 사서, 1958년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사서장으로 근무하였고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문헌정보학의 도입 초기에 당시 도서관 담당자들의 실무 기반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전국을 돌며 도서관 제반 실무에 대해 강습함. 1976년에 한국도서관학회 회장, 1981년에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1983년에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 주요 저서

- 『동저자기호표』 1958년
- 『주제명표목표』 1961년
- 『한글순도서기호법』 1982년
- 『한국목록규칙』 제3판 1983년
- 『새연대순도서기호법』 1984년

신기남 2006서울WLIC 조직위원장, '제28회 외솔상' 수상



신기남 2006서울WLIC 조직위원장(前한국도서관협회장)은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데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제28회 외솔상' 실천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0월 19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외솔상은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선생의 뜻을 기려 매년 학술과 문화실천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협회, '서울-책을 열다' 행사에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홍보 부스 운영



우리협회는 10월 28일(토)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독서캠페인 '서울-책을 열다' 행사(용산역 아이파크 이벤트 광장)에 참가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였다.

홍보 부스에서는 현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참여하는 서울시 26개 공공도서관의 홍보 배너와 선정된 도서를 전시하였다. 홍보 배너에는 도서관 안내와 각 도서관의 선정도서 및 관련 행사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 전문위원회 ***

목록위원회, 2006년 제2차 회의

- 일시 : 2006년 10월 11일(수) 14:00~17:00
- 장소 : 협회 회의실
- 참석 : 김태수(위원장), 기민도, 김은수, 김이겸, 김정현, 이재선(이상 위원) 강원영(사무국)
- 안건 : 1) 국제목록전문가회의에 대한 결과
2) ISBD 초안(통합용) 목차 검토
3) 국립중앙도서관 표목규칙 연구
- 회의 내용
 - 안건 설명(김태수 위원장)
 - 안건 설명(기민도 위원)
 - 안건 설명(이재선 위원)
 - 1. 국제목록전문가회의에 대한 결과
 - 국제목록원칙규범(서울 수정안)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2. ISBD 초안(통합용) 목차 검토
 - ISBD 항목 중 동양의 목록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과 그 대안을 알려줘야 함. 한국은 KCR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한 건의가 필요함.
 - 목록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맡은 부분의 ISBD 초안을 읽어보고, 30일까지 이재선위원에게 제출. 11월 10일까지 이재선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3. 국립중앙도서관 표목규칙 연구

- 대표 표목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의견 : 전거레코드가 있을 때 전거를 따름, 국가별 대표적 언어형식을 따름 (ex:미국-영어, 중국-한자, 한국-한글, 일본어의 경우 입수순 등). 처음 입수된 도서에 적혀 있는 것을 따름 (ex:춘원, 이광수 둘 중 적혀있는 대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 채택(ex:만해 한용운 경우 한용운 채택, 본명이 김정식임에도 불구하고 김소월 채택). 대표 형식을 두 개를 둠(ex: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 둘 다 씀).
- 가령, 입수 순의 원칙 하에 했을 경우 ① 도서에 적힌 것 ② 외래어도 한글 음을 사용하는 제안 규정을 둠.
- 가령,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본명과 호를 둘 다 사용할 경우, 한글 이름과 외국 이름이 다른 경우 등)
- 인명 대표 표목이 필요한가, 이번 회의에서 대표 표목을 정하는 것이나 표목규칙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음.
- 70일 내에 목록위원회에서 표목규칙을 정하는 건 어려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목록 규정으로 진행하기 권고함.

기획위원회, 2006년 제5차 회의

- 일시 : 2006년 10월 16일(월) 16:00~17:40
- 장소 : 협회 회의실
- 참석 : 윤희운(위원장), 문영철, 성정희, 장덕현, 조영추(이상 위원) 이경구 사무총장, 이용훈 기획부장(이상 사무국)
- 안건 : 1) 도서관법 시행령 제2차 시안 작성 건
2) 기타안건
- 회의 내용
 - 도서관법 시행령 관련 보고
 - 안건에 대해 위원들간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 함.
 -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시행령 초안이 공식 발표되면 검토하여 대응하기로 함.
 -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신설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현재 검토한 바와 같이 다른 도서관을 지정하는 방식은 법률 제정의 의미를 제한하

게 될 것임. 만일 문화부 초안이 이같은 원칙과 다를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을 내도록 함.

- 성정희 위원이 제시한 [별표]에 대한 안은 수용하지 않음. 문고에 대해서도 현재 문화부의 방침대로 기존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르기로 함.

* 협의회소식*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2006년도 추계세미나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는 10월 27일(토)과 28일(일) 양일간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에서 2006년도 추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관종별 사서 및 도서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

우리협회에서는 이경구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 프로그램

- 유비쿼터스 환경과 도서관
/ 홍성제(포항공과대 청암학술정보관장, 교수)
- 좌충우돌 도서관 마케팅 : 10개월 동안의 경험
/ 김지홍(대구대학교도서관 사서)
-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개발 사례
/ 노경재(두류도서관 문헌정보실장)

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시지부, '2006년도 세미나' 개최

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시지부는 10월 26일(목) 정독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책 읽는 서울의 미래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주제로 '2006년도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시지부와 서울문화재단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공동 추진에 의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구립도서관 간의 상호 네트워크 협력과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프로그램

<기조연설>

- 책 읽는 서울의 미래-한 도서관 한 책 읽기
/ 이용재(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발표 및 토론>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통한 독서진흥 전략
/ 발표 : 윤정옥(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 : 김영호(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임윤철(동대문도서관 자료봉사과장)
- 지역주민과 함께 여는 공공도서관의 독서활성화 방안
/ 발표 : 송영숙(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
/ 토론 : 박미영(노원어린이도서관 관장)
박미환(강서도서관 자료봉사과장)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26차 관리자 세미나 개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제주도 서귀포 KLA호텔에서 "대

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학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11월 1일(수)에는 우리협회 김태승 부회장이 “대학도서관의 본질과 주체”를 주제로, 11월 2일(목)에는 우리협회 이경구 사무총장이 “도서관법 개정 에 따른 도서관 정책방향의 변화”에 대해 각각 주제강연을 했다.

*** 국내소식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지역 작은도서관(문고 포함) 활성화 연찬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은 한국도서관 협회와 함께 ‘서울지역 작은도서관(문고포함) 활성화 연찬회’를 10월 30일(월)부터 31일(화)까지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작은도서관 발전에 원활한 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까지 권역별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로 서울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소개,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 작은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발전 등을 논의하였다.

■ 프로그램

〈10월 30일(월)〉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정책 / 성정희(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 성북정보도서관 사례 / 조정화(성북정보서관장)
- 도서관의 중요성과 북스타트 운동 / 도정일(책읽는사회문화재단 대표)
- 나와 도서관 / 김상욱(춘천교육대학교 교수)
- 작은도서관 성공사례 / 이재희(부천시립도서관 팀장)

〈10월 31일(화)〉

-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김소희(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 관장)
- 현장체험(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 서울숲)

국립중앙도서관,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도서관의 비전과 정책 방향’ 열린정책세미나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10월 23일(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도서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정립에 관해 논의하였다.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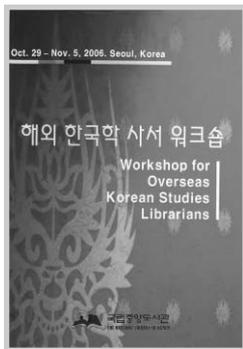
<주제발표>

-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도서관 비전과 정책방향
/ 이지연(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패널토의>

- 남영준(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차미경(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조영주(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 사무관)

국립중앙도서관, '제2회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개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권경상)은 해외 한국학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도서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제2회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을 10월 29일(일)부터 11월 5일(일)까지 개최하였다.

이번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에는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등 세계 10개국의 국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학 관련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19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한국학 관련 주요 정보원에 대한 정보 습득, 고문헌자료의 보존을 위한 관리 실습, 한국학 관련 기관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설명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10월 26일(목)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출판시도서목록(이하 CIP) 서

비스의 필요성 및 활용'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CIP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출판사 및 도서유통업계의 CIP에 대한 이해와 CIP에 대한 참여도를 높임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확장된 국가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 프로그램

- e-CIP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 오동근(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출판유통관리시스템의 e-CIP 연계 활용방안
/ 최성구(출판유통진흥원 기획관리팀장)
- CIP를 활용한 pre-마케팅
/ 박영준(교보문고 구매부장)
- e-CIP 서비스 현황 및 이용 안내
/ 강민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협의회, '제6회 공공도서관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협의회는 10월 16일(월)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한 '제6회 공공도서관대회'를 서귀포시 88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공공도서관 직원 200여 명이 함께 하였으며, 이용길 前제주산업정보대학장이 '특별자치도 시대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 프로그램

- 이용자들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의 역할
/ 고주희(한경면도서관)
- 학교도서관의 발전방향
/ 김병철(한경면도서관)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
/ 김은순(서귀포시동부도서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어르신일자리 시범 사업 실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10월말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일자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어르신의 삶이 곧 도서관이다’는 주제로 전개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뒤 도서관 업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12월까지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된 어르신들은 도서관 이용안내와 어린이에게 책읽어주기, 서가 정리, 한자 및 예절교육, 자연체험 학습장관리 등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

광진정보도서관친구들, 후원의 밤 개최

‘광진정보도서관친구들’은 결성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19일(목)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도서관친구들’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의 진정한 가치와 올바른 역할에 대해 인식을 돕고있다.

이번 후원의 밤은 ‘광진정보도서관친구들’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에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문의 : <http://cafe.daum.net/librarychingu>]

서대문구 이진아기념도서관, “2006 한국건축 문화대상” 준공부문 우수상 수상

건설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한 “2006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서대문구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준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 17일(화)에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수상작은 10월 17일(화)부터 21일(토)까지 건설회관 2층 로비에서 전시되었다.



준공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이진아기념도서관은 한 기업가가 미국 여학연수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을 기리기 위해 기부금으로 마련된 도서관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인 도서관 건물의 외벽은 서대문 형무소의 담장과 맞닿아 있고 주변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점토벽돌과 이쁜나무로 마감했다. 또 공원 내에 위치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경기도·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2006 경기도 공공도서관 활성화 추진 워크숍’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은 10월 24일(화)부터 25일(수)까지 용인화곡콘도에서 경기도내 시·군 및 교육청 도서관 운영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06 경기도 공공도서관 활성화 추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공공도서관 발전의 전환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프로그램

〈특별강연〉

- 공공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및 발전방향
/ 광동철(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공도서관 마케팅 전략
/ 이우정(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관장)
- 경기도 도서관 정책 소개
/ 박신환(경기도 문화정책과 과장)

- 도서관법 개정과 도서관 정책 변화
/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사례발표)

- 독서치료상담실 운영 사례
/ 류광현(성남국립도서관 사서)
- 실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소개
/ 서성남(안양석수도서관 사서)
- 꽃피우는 아이들 프로그램 소개
/ 지영순(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사서)
- 외국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엮보기 프로그램 소개
/ 박은경(남양주진건도서관 사서)

각 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개최

전국의 여러 시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을 각각 개최하였다.

먼저 **김포교육청**은 10월 21일(토) 금파초등학교에서 '북새통(북을 읽으면 새로운 생각이 퐁퐁 튀어요.)' 행사를 개최했다. 축제에서는 독서 포스터를 전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 빛그림자 공연, 독서 골든벨 대회, 나만의 책 만들기, 책도장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수원교육청은 10월 21일(토) 수원시 만석공원일대에서 '2006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축제한마당에서는 학부모 참여 인형극,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공모전, 사진전 등이 열렸다.

평택교육청은 10월 27일(금) 효명중학교 체육관에서 '2006 학교도서관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책갈피 만들기, 책나무 키우기, 장서표 만들기, 인형극, 플루트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꾸며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제주 책축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21일(토) 과 22일(일) 양일 간 '제1회 제주 책 축제'를 한라수목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는 '책들의 가을소풍'을 주제로 열렸으며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출품됐던 한국의 아름다운 그림책 100선 전시와 '교과서 음악을 숲에서 만나다'란 주제의 연주회 및 '영상으로 만나 보는 그림책' 공연이 열렸다.

또한 수제지 만들기, 꼬마책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필름책 만들기, 한글입체카드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도종환 시인의 특강도 있었다.

이날 축제에는 우리협회 이경구 사무총장과 유태형 관리지원과장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으며 도서 전달식도 가졌다.

인천시교육청, 학교도서관 협력단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협력단(School Library helper)'을 10월 12일(목)부터 운영한다.

협력단은 학교도서관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을 해주는 활동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경험이 많은 교과교사 5명, 공공도서관 사서 9명, 사서교사 10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0월 12일(목)부터 11월 말까지 인천의 일선 학교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펼친다.

부천예술정보도서관, '제5회 다감 심포지엄' 개최

부천예술정보도서관은 11월 1일(수) '예술미디어 활용 교육의 실제와 전망'을 주제로 '제5회 부천예술정보도서관(다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문화예술 자료를 활용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예술정보도서관의 실제적인 운영 사례를 발표하여 미디어 활용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했다.



■ 프로그램

<사례 발표>

- 영화, 음악, 미술, 연극을 활용한 도서관운영프로그램 개발 / 이덕주(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 부천예술정보도서관의 예술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계획 / 정희숙(부천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지정 토론>

- '다감의 찾아가는 예술 감상' 시연 및 평가 / 이영미(문화자원활동가)
- 상원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 '다감의 찾아가는 예술 감상' 효과 및 기대 : 2006년 참여 학교 / 남애선(부천상원초등학교 사서)

청주시, 책 읽는 청주 선포식 개최

청주시는 '책 읽는 청주 선포식'을 10월 18일(수) 청주시립정보도서관에서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책 읽는 청주, 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청주'라는 슬로건으로 범시민 독서운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은 지난달 9월 29일(금) '책 읽는 청주'의 대표도서로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선정했다.

앞으로 각급 기관단체, 학교와 독서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소그룹단위 토론회를 갖도록 유도하고, 시민토론회, 독후감 공모, 원화 전시회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내중심에 북 카페를 설치해 선정된 책을 읽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 기념전 열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규장각)은 개교 60주년 기념 '전통과 세계의 만남' 특별전을 10월 26일(목)부터 11월 10일(금)까지 개최하여 규장각 소장 자료 90여점을 공개했다.

전시작중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있으며 정족산 사고본과 오대산 사고본 실록 10여점이 공개되었다.

특히 실록의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실록내용 중 영화 '왕의 남자'의 '공길'이 나타나는 '연산군 일기'의 부분과 드라마 '대장금'의 의녀 '장금'이 등장하는 '중종실록' 중 장금 수록 부분 등을 공개한다.

인포어린이도서관, '제15회 사서 워크숍' 개최

인포어린이도서관은 10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인포어린이도서관 본부에서 '제15회 사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인포어린이도서관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96년~97년을 바라보며 "어린이와 부모를 인포어린이도서관으로"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워크숍 강연은 국내 초등학생들이 독서록 작성을 위한 숙제 일환으로 책 읽기에서 벗어나 도서관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책 읽기 지도와 자원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싶어하는 도서관을 준비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사제공 : 인포어린이도서관]

■ 프로그램

<강연>

- 아이들과 책이랑 놀자 : 아이들과 소통하는 힘 책과 놀이, 낯선 도서관과 친해지기 / 고무신
- 도서관 문화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 :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사례 / 강영아, 김은정

〈운영사례발표〉

- 독서팀티칭 / 태백 인표어린이도서관에서 함께 하는 동아리 모임 / 지역어린이도서관의 자원봉사자 관리방안 / 2006 여름방학 독서동아리 '어랑서랑' / 책아, 놀자 : 책사랑잔치, 읽을 거리, 볼 거리, 놀 거리 많은 도서관 만들기 / 장서점검에 대해서 : 대구 사례 중심 / 신나는 독서게임: 리딩 아카데미!! / 책 읽어주는 선생님(북시티) 파견사업 소개

느티나무문화재단, 용인지역 마을도서관 자원활동가교육 마련

느티나무문화재단은 용인지역에서 운영중인 마을도서관을 대상으로 자원활동가교육을 10월 16일(월)부터 11월 20일(월)까지 용인시립수지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몇 해 동안 용인시에 생긴 마을도서관들이 마을도서관네트워크 모임을 시작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함께 해결방법을 찾고자 마련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당장 사서를 구할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어려운 마을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먼저 자원활동가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도서관의 틀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으로 정했다.

■ 프로그램

〈교육강좌〉

- 일시 : 10/16~11/20 격주 월요일
- 장소 : 용인시립 수지도서관 시청각실
- 1강(10/16) : 책읽기 동아리 잘 운영하기 - 자료수집과 관리를 중심으로
- 2강(10/30) :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 3강(11/6) : 책과 함께하는 동아리 조직과 운영
- 4강(11/20) : 외국 어린이도서관 문화활동 사례 - 일본 〈워크숍(같은 내용으로 두차례 개최)〉
- 1회, 3회(10/23, 11/27, 행복한도서관)
 - 문화활동 기획과 진행- 독서회, 책 읽어주기, 그림책 슬라이드, 지은이 만남 등

- 그림책 슬라이드 제작과 상영

· 2회, 4회(10/24, 11/28,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 세상에서 하나뿐인 책 : 찢기고 뜯어진 책 말끔하게 고치기

〈견학〉

· 11/13(월) 안성시립도서관

- 안성지역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현황과 계획 / 유병장(안성시립도서관장)

춘천어린이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 문화한마당잔치 개최

강원 춘천어린이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0월 14일(토) 춘천시 강원도립화목원에서 '우리 함께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요'를 주제로 문화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발족된 추진위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 동화작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바라는 도서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와 '대형천에 내 마음의 도서관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책을 열다' 행사 개최



서울문화재단은 10월 28일(토) 용산역 아이파크 이벤트 광장에서 '서울-책을 열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문화재단이 선사하는 독서 캠페인 - '책 읽는 서울'의 2006년 사업을 집대성하는 행사로, 올해는 '책 속에서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주말 가족이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독서이벤트퀴즈대회-독서의 제왕' 행사에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및 도서관을 대상으로 25개팀 100명의 독서원정대가 참가했다.



또한 용산역 광장에 2m 높이의 그림 동화책을 설치해 색다른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며 좋은 책 읽기 가족모임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과 '책 읽는 서울의 대표 프로그램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홍보부스 등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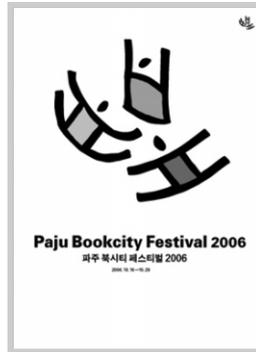
이외에도 '동화 읽어주는 낭독회'가 마련되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철학동화를 낭독하고 출연진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파주출판도시, '북시티 페스티벌 2006' 개최

경기파주출판도시에서는 10월 19일(목)부터 29일(일)까지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을 개최했다.

행사 기간 동안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을 비롯해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파주북시티 책잔치'와 특별전시 '종이에서 책으로' 등이 열렸다.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은 10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출판포럼에는 아시아와 유럽 8개국에서 출판전문가 40여명이 모여 다매체시



대 출판의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특별전시회 '종이에서 책으로'는 10월 19일(목)부터 29일(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다목적홀 특설전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출판 편집 디자이너들이 종이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종이의 경쟁력 2006'을 비롯해 일본·대만 등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디자인북을 선보이는 '동아시아 굿북 디자인',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들의 대표 도서를 모아놓은 '여기, 북시티의 자존심' 등 다채로운 전시가 함께 열렸다.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은 10월 27일(금), 28일(토) 이틀 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개최됐다. '아시아적 상상력과 북디자인'이라는 주제에 각 나라가 제시하는 이미지와 콘텐츠 사례를 살펴보고, 출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했다.

파주북시티 책잔치는 10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출판도시에 개최했다. 이번 책잔치는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책거리', 중고 음반과 비디오까지 자유롭게 사고 파는 '책 벼룩시장', '작가 및 저자와의 만남', '동화책 속 주인공 만들기', '문학과 영상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7회 간행물윤리상' 시상식 개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0월 30일(월)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제17회 간행물 윤리상'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2006 간행물윤리' 수상자로 남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 남경희 교수는 『플라톤: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로 저작상을, 박성모 소명출판 대표가 출판인쇄상을, 오해자 초롱이네도서관 대표가 독서진흥상을, KBS 1TV 'TV 책을 말하다' 팀(책임PD 김학순)이 특별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간행물윤리상은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과 독서진흥을 위해 1990년 제정되어 매년 저작상·출판인쇄상·독서진흥상·특별상 등 4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한국문헌정보학회, '권기원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봉정식' 및 '2006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문헌정보학회는 10월 20일(금)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 '권기원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봉정식' 및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정년퇴임식을 가진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권기원 교수는 한국문헌정보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년 기념



논문집 봉정식을 통해 권 교수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동료 교수와 여러 후학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또한 함께 열린 학술발표회에서는 Howard White박사의 "Integrating Ideas in Information Science"에 관한 기초연설이 있었으며 공공도서관 분야에 대한 다양한 10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다.

* 해외소식 *

미국,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안 'Orphan Works Act of 2006' 제정 논란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안 'Orphan Works Act of 2006'이 2006년 6월 22일에 미국 의회 하원에 제출되었다.

'Orphan Works'는 '저작권자를 찾아내는 것이 곤란, 혹은 불가능하지만 저작권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저작물'로 현재 미국에서는 '소니·보노 저작권 존속 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의해 저작권의 존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같은 저작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회도서관(LC) 저작권국도 2006년 1월 26일 'Report on Orphan Works'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도서관협회(ALA)는 '2006 Copyright Agenda'에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저작권에 관한 최대중요 법안의 하나로 지목했다.

저작자 단체에 의한 격렬한 법안 성립 저지 활동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법안에의 지지자 확보를 위해서 'Orphan Works' 법안을 제출한 스미스(Lamar Smith)의원은 'Orphan Works'에 음악의 온라인 전

달이나 지적재산의 침해에 대한 처벌 범위의 확대를 더한 '저작권 근대화 법안(Copyright Modernization Act of 2006)'을 9월 13일에 하원에 제출했다.

스미스 의원은 2006년 연중의 법안 성립을 단념했지만 2007년 개회 예정의 제110 의회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http://www.ala.org/washoff/WOissues/copyrightb/copyagenda.pdf>]

미국, 도서관 직원 전용 e-러닝에 대한 의식과 요구에 관한 조사 발표

2003년 활동을 시작한 도서관 직원을 위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WebJunction에서는 도서관 직원 전용 e-러닝에 대한 의식과 요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Webjunction 등록자와 도서관계의 교육 네트워크 CLENERT 등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조사되었으며 총 651명이 응답했고 그 중 공공도서관 직원이 65%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조직이 향후 3년 이내에 e-러닝으로의 직원 연수를 실시할 전망이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 70%, 같은 조건으로 1년 이내 e-러닝직원 연수를 실시할 전망이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 49%로 조사되어 많은 곳에서 e-러닝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러닝의 이점으로는 편리성, 비용대비 효과, 목적에 있던 연수를 받게 되는 것 등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측면과 시간의 부족,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http://webjunction.org/do/Home>, <http://data.webjunction.org/wj/documents/14077.pdf>]

유네스코, 디지털 자료의 장기 보존에 CD와 DVD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1990년대부터 도서관·도서관·박물관 등은 소장 자료를 디지털 형식에서 장기 보존하기 위한 매

체로서 주로 CD·DVD를 이용했다. 그런데 2000년 전후 하드 디스크나 그 백업용 자기테이프등의 보존 매체가 고숙화·저가격화 되면서 CD·DVD의 신뢰성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유네스코의 「세계의 기억」 프로젝트의 기술 소위원회도 이같은 염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체 및 기록/재생장치의 선택 방법이나 기록·검증의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06년 6월 CD·DVD의 신뢰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매체의 규격이나 기록 방식, 기록/재생 시 매체와 장치의 호환성 등 CD·DVD의 종류와 특성을 소개한 다음 매체의 선택, 데이터의 기록, 검증 등을 실시할 때의 유의 사항이나 허용할 수 있는 에러 수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출처 : http://portal.unesco.org/ci/en/ev.php-URL_ID=22734&URL_DO=DO_PRINTPAGE&URL_SECTION=201.html]

웹 저널 방식의 논문게재·검증 확산

인터넷을 통한 논문 검증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웹 저널 방식으로 알려진 이 같은 논문 검증은 밀실심사와 동료 비평을 추구하는 기존 학술지와 달리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논문을 심사하는 것이라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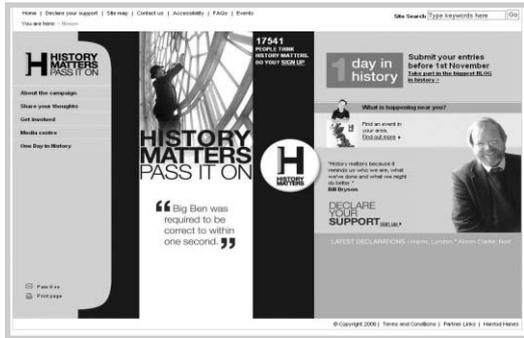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공공과학도서관(PLoS)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 도서관은 과학 및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웹 저널 'PLoS ONE(플러스원)'을 11월중에 개설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무료로 논문들을 공개하며 논문 초고에 대한 엄격한 동료 비평은 생략된다.

올해 개설된 '필리카(Philica)'는 더 급진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논문 게재 학자들은 동료비평과 게재비가 제외되며 익명의 논평도 허용된다. 사이트 운영자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논평에만 물음표가 달리게 된다.

이런 현상은 기존 학술지들의 권위적인 게재 논문 선정 방식과 학계에서 이런 학술지 논문 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불만이 작용한 데 따른다.

영국, 영국인의 일상생활을 역사로 남기기 위한 블로그 개설



(www.historymatters.org.uk)

영국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민간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는 평범한 영국인들의 일상 생활을 역사로 남기기 위한 '영국 최대의 블로그'를 개설했다.

이 웹사이트는 영국 전역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 생활을 기록한 일기를 적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기록날짜를 특별한 국가적 중요성이 없는 날로 2006년 10월 17일(화)로 정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이 사이트가 역사 속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21세기 초반 일상생활을 기록한 스냅사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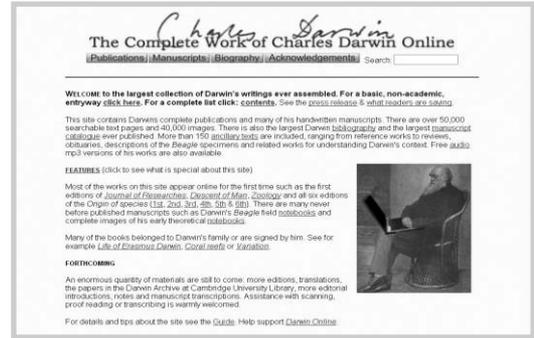
참여를 원하는 영국인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100자~650자 분량의 하루 일기를 기록하면 된다. 이 블로그 일기는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블로그는 완성 후 영국도서관을 비롯해 여러 곳에 보관될 예정이다.

과학자 찰스 다윈의 저작물 인터넷에 공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은 과거 다윈이 쓴 원 저작물의 사진 4만 장과 텍스트 5만 쪽을 디지털로 옮긴 다

윈 온라인 도서관(darwin-online.org.uk)을 구축했다.

이 자료들은 원래 학자들을 위해 인터넷에 올려졌지만, 다윈과 다윈의 생물진화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글호 항해기를 포함해 『인류의 유래』, 『종의 기원』 같은 다윈의 대표작들이 올라와 있다. 또 다윈과 다윈의 저서를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의 글과 논문 등 보조 자료도 150종 이상 사이트에 수록돼 있다. 이 사이트는 다윈 탄생 200주년인 200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필요한 자료 중 50%를 확보한 상태다.

[출처 : <http://darwin-online.org.uk/>]

학생이 만드는 오픈 액세스잡지 "Library Student Journal" 창간

도서관 정보학 전공의 학생들이 만든 도서관 정보학의 오픈 액세스잡지 "Library Student Journal" (이하 LSJ)이 2006년 9월 온라인 상에 창간되었다.

LSJ는 미국의 버팔로 대학의 학생이 편집하는 잡지로 장래 도서관 정보학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국제적인 학술잡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고 원고에는 기사, 에세이, 리뷰, 논평 등의 구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학생이 집필해야 한다. 논평에 대해서는 실무자나 교육자도 집필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장래의 유행에 관한 기사에 역점을 두고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잡지는 최저 세 사람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 그 중 두 사람은 편집 위원, 한사람은 그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편집 위원은 미국의 도서관 정보학 전공의 학생을 중심으로 현재 25명이 있으며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출처 : <http://informatics.buffalo.edu/org/ljsj/index.php>]

네덜란드왕립도서관, 2006년-2009년 도서관 전략 계획 발표

네덜란드왕립도서관(이하 KB)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도서관 전략 계획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략적 테마 및 도서관 서비스와 그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략적 테마는 도서관의 위치 설정의 재평가, 과학 기술 정보의 인프라 정비, KB의 국제적인 위치설정 강화 등 3분야로 구분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과학기술 정보의 인프라 정비,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 정보의 대규모 디지털화, 디지털화와 보존에 관한 정부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화된 학술 정보에의 영속적인 액세스 보장, 디지털 자료의 보존에 관한 조사 연구, 유럽 도서관과 국제 도서관협회연맹(IFLA) 등 국제적인 대처·기관과의 제휴 강화 등이 각각 목표로 정해졌다.

도서관 서비스와 그 인프라에 관한 기술로서는 예산, 인적자원, 노동시장 등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시설·설비에 관한 현황과악과 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 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디지털 자료의 보존 및 KB 웹아카이브(archive)에 관한 조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출처 : <http://www.kb.nl/bst/beleid/bp/2006/2006-en.html>]

* 변경 · 이전 *

사북공공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 변경전
전화 : 033-592-5757, 5759
팩스 : 033-592-5758
- 변경후
전화 : 033-592-5757~8
팩스 : 033-592-5759

김해도서관, 홈페이지 도메인 변경 및 한글 인터넷주소 안내

- 신규도메인 : www.gimhaelib.go.kr
- 한글인터넷주소 : 김해도서관

* 향후 도서관계 행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제9회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09:00~17:20
- 장소 : COEX 그랜드볼룸(104호, 105호)
- 주최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도서관협회
- 주제 : 디지털도서관의 기술현황 및 미래과제
 - 문의 : 최인석 팀장(02-3708-5381)
이중서 연구원(02-3708-5382)
 - 홈페이지 : <http://www.dlc.or.kr>

제6회 한국전자출판산업전

- 일시 : 2006년 12월 7일(목) 10:00~18:00
- 주최 : 2006 한국전자출판산업전 조직위원회
- 문의 : 031-955-0043
- 장소 : 경기도 일산 KINTEX 그랜드볼룸 3F
- 홈페이지 : <http://cug.kepa.or.kr>

* 신설도서관 *

공주강북시립도서관



- 개관일자 : 2006. 8. 16(수)
- 면 적 : 부지 6,345㎡, 건축연면적 2,285㎡
- 관 장 : 김척기(행정 6급)
- 주 소 : (314-120)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481-3번지
- 전 화 : 041-840-3682~5

- 팩 스 : 041-840-3691
- 홈페이지 : www.kbllib.or.kr
- 특 징 : 지상 3층 규모. 장서 도서 10,381종(일반도서 10,069권, 비도서 312종), 잡지 30종, 신문 15종을 갖춘. **1층**에는 일반열람실·장애인열람실·노인열람실, **2층**에는 가족/어린이열람실·문화센터·사무실이, **3층**에는 종합자료실·디지털자료실·문화강좌실이 있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영암군립도서관 신축이전



- 개관일자 : 2006. 10. 20(금)
- 면 적 : 대지 5,500㎡, 연면적 2,434㎡
- 설 계 : 삼우건축설계사무
- 관 장 : 최두복 지방 행정사무관
- 주 소 : (526-802)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383
- 전 화 : 061-473-0656
- 팩 스 : 061-470-2718
- 홈페이지 : <http://www.yalibrary.or.kr>
- 특 징 : 한옥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 지상 3층 규모. 장서 69,506권을 갖춘. **1층**에는 종합자료실·유아/아동열람실·사무실이, **2층**에는 디지털자료실·시청각/세미나실·보존자료실·문학창작실이, **3층**에는 열람실이 있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진해시립동부도서관



- 개관일자 : 2006. 10. 25(수)
- 면 적 : 3,367㎡
- 설 계 : 부산광역시 시반설계사무소
- 관 장 : 최학준(중앙도서관과 겸직)
- 주 소 : (645-510)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1226번지
- 전 화 : 055-548-2451
- 팩 스 : 055-548-2459
- 홈페이지 : <http://dongbulib.jinhae.go.kr>
- 특 징 :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장서 9,817권을 갖춤.
지하1층에는 다목적강당이, **1층**에는 어린이실 (유아방, 어린이방) · 사무실이, **2층**에는 디지털 자료실(AV실1·2) · 종합자료실1 · 참고/연속 간행물실이, **3층**에는 종합자료실2 · 소모임실 · 세미나실 · 보존서고가 있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어린이도서관



- 개관일자 : 2006. 10. 31(화)
- 면 적 : 부지 636㎡(192평), 건물 330평
- 설 계 : 디아키
- 관 장 : 주창술
- 주 소 : (612-0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1동 958-23번지
- 전 화 : 051-749-7631~7
- 팩 스 : 051-749-7639
- 홈페이지 : www.jschildlib.go.kr
- 특 징 :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장서 15,627권을 갖춤. **지하1층**에는 보존서고가, **1층**에는 유아 자료실 · 디지털자료실이, **2층**에는 시청각실 · 모자열람실 · 아동자료실이, **3층**에는 정기간행물실 · 네임크로바실이 있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